

# 나주중학교, 방과후 '궁도부'를 소개합니다

## 박세미 교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 지난 8월 28일 나주중학교 여학생이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며 표적을 집중하고 있다.

궁도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이다.

지난 11월 25일 대한궁도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궁도진흥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11월 15일부터 2박3일간 울산광역시 궁도협회는 반구천 임각화 일원에서 활의 시연임을 알리는 전국궁도대회가 개최됐다.

또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활쏘기 교육과 수련이 방과후학습을 통해 썩씩하게 성장하고, 좋은 추억으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교육이 진행중이다.

CTN취재진은 6일 나주중학교를 방문해 박세미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선생님 소개와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중학교 교사 박세미이고 방과후 특기적성부장을 맡아서 총 17개의 방과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주중 방과후 부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크게 체육, 특기, 음악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체육 방과후 부

서들은 외부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음악 관련 방과후 학생들은 나주 시정에서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연계 활성화를 통한 나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국공부 학생들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생 궁도대회'에 참가하여 남녀 개인전 4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 국공부서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나요?**  
2년 전부터 국공부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제가 올해 나주중에 와서 방과후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국공부서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국공부 학생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인성과 체력 단련하는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국공부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굉장히 높은 집중력과 승부욕을 가지고 훈련의 결과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공부서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에 의한 수업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벽면을 손상 시키게 되는 어려운 점이 발생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항상 외부 훈련장에서 수업을 받기에는 이동하면서 발생 되는 안전사고, 학교 담당자가 매 수업마다 인솔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사실 저도 국공장과 궁궁이라는 스포츠가 생소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기반 환경이 허락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도 국공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국 최영준 기자

#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청렴정책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원장 배지현)은 '2024년 청렴정책 추진실적 측정 평가'에서 직속기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충남 최고의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청렴정책 평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했으며 △조직문화 개선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인식 개선 △함께하는 청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주요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특히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청렴 문화 확산 활동을 펼쳐 조직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배지현 원장은 "이번 청렴정책 추진실적 평가 1위 결과는 전직원이 한마음으



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 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 서전고, 일본과 중국에서 학술, 체험 활동 진행

## 후쿠오카 이토시마고,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등 방문



▲ 서전고, 일본과 중국에서 학술, 체험 활동 진행

서전고등학교(교장 한중희)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이토시마고등학교를, 1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중국 상하이와 난징을 방문해 학술교류와 국외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한일학생 학술교류활동은 작년에 시작되어 올해 두 번째로, 서전고는 매년 자율연구로 진행되는 학술제의 내용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서전고 학생 35명이 참여했는데, 학기 중에 온라인 교류를 통해 준비한 결과를 이토시마고에서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교류와 규슈대학교와 이토시마 지역

문화 탐방 활동을 했다.

또, 이상선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서전고는 현재 20명의 학생들이 상하이와 난징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했다.

한중희 교장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학술교류와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 독립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지역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 서전고는 학술교류와 국외체험 학습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예정이다. /이병종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 환경사랑 바자회 수익금 기부

## 수익금 전액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은 지난 16일 서산학부모협의회(회장 서민정) 임원과 함께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기부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산교육지원청과 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함께하는 환경사랑 바자회'는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말 연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서산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학부모협의회가 기부한 중고 물품, 생활용 물품, 친환경 상품,

서산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 먹거리 등을 판매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기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은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직원들 또한 "환경 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수익금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성기동 교육장은 "환·장·해·유'는



▲ 서산학부모협의회, 환경사랑 바자회 수익금 기부 모습

서산지역의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 실천의 상징적인 브랜드이다.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나눔을 실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서산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보호 인식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 당진교육지원청, 2025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중)은 지난 13일 당진도서관,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행정실장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 사회를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어떤 자세와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공유하고 부서별 2025년 상반기 주요 전달사항인 ▲동절기 및 해빙기 대비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공무원 주요 범죄 비

위행위 예방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계약 권장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중 교육장은 "미래 사회는 예상하는 것보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2025년에도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 TINY 펫

## TINI PET

### 소동물 분양 및 용품판매

### 피그미다람쥐, 골든햄스터

010 3049 3621

충남 서산시 동문동 을지18로 50 탑빌딩 2층